

한반도 선사시대 굽다리토기 연구

姜秉學*

목 차

- I. 머리말
- II. 형식분류
- III. 지역별 분포 및 특징
- IV. 시공적 전개양상
- V. 성격추론
- VI. 맺음말

〈 요약 〉

본고는 매우 복잡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는 선사시대 토기 중 굽다리토기에 대한 연구이다. 특수한 기형의 이 토기는 분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례용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그 명칭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충분히 객관적이고도 적절한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토기는 저부와 신부의 상대크기에 따라 대부형(I형)과 대각형(II)으로의 세부기종 설정이 가능하고 세부기종별 속성분석을 통하여 6형식의 형식분류가 이루어졌다. 무문토기시대 전기 주거지유적에서 공렬 및 각형토기와 공반하는 1·2·3·4형식의 토기(북한→강원영동→경기중부·충청서해안지역)는 점토대토기문화가 도래하면서 생활, 분묘, 생산, 폐기 그리고 의례관련유구에서 출토되는 5·6형식 토기(경기중부·충청서해안→호남·영남지역)로의 변화를 보이면서 전개된다.

즉 점토대토기문화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굽다리토기의 형식도 변화·확대되고 있다. 또한 출토맥락, 형식조합, 제작기술 등의 관점에서 공렬 및 각형토기와 공반하는 1·2·3·4형식은 일상 생활용기로의 상정이 가능한 반면 점토대토기와 조합을 이루는 5·6형식 토기는 의례관련유구와 분묘유구에서 다량 출토되고 있어 기원이나 소원과 관련된 의례용기, 그리고 부장용으로의 기능분화가 관찰된다.

[주제어] 굽다리토기, 공렬토기, 각형토기, 점토대토기문화, 기술유형, 시공적 전개, 기능분화

* 高麗文化財研究院

(접수일: 2005.9.23, 심사일: 2005.11.24, 심사완료일: 2005.12.5)

I. 머리말

지금까지 무문토기의 개별형식에 대한 연구는 공렬토기(노혁진 1994,李清圭 1988, 조유전 1993), 각형토기(한영희 1983), 단도마연 및 채문토기(李健茂 1986, 하인수 1988?1995), 송국리형 토기(安在皓 1992, 이흥중 1993, 趙現鍾 1989), 중도식토기(李相吉 1991, 이흥중 1991), 원형점토대 토기(金範哲 1996, 盧美善 1998, 朴辰一 2000, 한상인 1981), 삼각형점토대토기(安在皓 1989, 정징원·신경철 1987)가 주로 이루어 왔다.

굽다리토기¹⁾는 時·空間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수한 기형이 특징으로, 이의 출현과 함께 貧富의 격차 혹은 階級의 발생과 같은 당시 사회상의 변화라는 가설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출토유적수의 한계성, 출토 맥락의 불분명, 완전한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출토유물의 결여 등 연구방법상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기형상으로 볼 때 비교적 단순하게 출토되던 신석기시대 토기에 비해 무문토기시대가 도래되면서부터는 문양이 사라지는 대신에 기형적인 측면에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이 급증하게 된다²⁾.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적극적인 물적증거를 찾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토기는 기형상 底部가 굽을 이루거나 圓柱形, 截頭圓錐形, 혹은 喇叭形의 脚部를 가지는 土器를 말하며, 身部는 접시, 盥, 鉢, 壺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器面에는 마연이나 깎기 등의 기면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擦痕을 제외하고는 문양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없지만, 의도적으로 丹을 칠하거나 탄착현상을 유발하여 적색 및 흑색의 토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는 무문토기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무문토기 제작의 傳統性을 가지고 있는 모든 토기를 포함하고 있다. 특수한 기형의 이 토기는 충분한 고찰 없이 보통 의례용으로서 인식되어져 왔으며, 그 명칭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1) '굽다리토기' 라는 용어설정의 기준이 된 것은 이 토기가 무문토기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원삼국시대 와질토기가 발생하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豆形土器'는 粘土帶土器 類型 중 높은 굽이 있는 기종을 말하며, 臺附鉢 또는 臺附盥 등과는 시대나 출토 유구의 양상에서 다른 개념으로 파악된다. 또한 '高杯形土器'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豆形土器를 뜻하긴 하나 원삼국시대 高杯의 前身으로서 이해하는 측면과 단순히 기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들이 혼재된 개념이다. 따라서 두형토기나 고배형토기라는 용어는 점토대토기와 공반되는 굽달린 토기라는 한정된 개념이므로 본 연구의 시대적 쏘 범위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상위의 개념이 필요하여 그 양식적·형태적 속성을 고려한 '굽다리토기'라는 용어를 가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이러한 현상은 토기의 대량생산과 기능성의 분화에 따른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토기 개체의 문양을 통한 세련미 추구보다는 변화 발전되어 가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들 토기들이 갖는 다양한 기능성의 분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1> 굽다리토기 출토유적 및 사용된 명칭

유적명	명 칭	비 고	유적명	명 칭	비 고
속초 조양동	굽다리잔		광주 치평동	豆形土器	
강릉 교동	굽다리잔		광주 신창동	高杯, 臺附壺	저부 높이에 의해 구분
여주 혼암리	高杯形土器		해남 군곡리	高杯, 臺附壺	저부 높이에 의해 구분
하남 미사리	丹途磨研高杯		경산 조영동	臺附壺, 臺附盃, 高杯形土器	저부 높이와 신부 형태에 의해 구분
춘천 칠전동	高杯		대구 연암산	豆, 高杯	혼용
부천 고강동	祭器形土器		김해 대성동	高杯	
천안 백석동	臺附小壺, 高杯, 臺附鉢	저부 높이와 신부 형태에 의해 구분	청도 사촌리	豆形土器, 高杯形無文土器	혼용
천안 청당동	臺附小壺		대구 안심3동	豆形土器, 臺附土器	저부 높이에 의해 구분
부여 송국리	豆		창원 다호리	豆形土器, 高杯, 臺附壺	저부 높이와 신부 형태에 의해 구분
보령 교성리	굽다리바리		대구 팔달동	高杯, 臺附土器	저부 높이에 의해 구분
보령 관창리	豆形土器		함안 도항리· 말산리	豆形土器	
광주 운남동	高杯		삼천포 늑도	高杯, 臺附土器	저부 높이에 의해 구분

따라서 한반도 30개 유적에서 출토된 298점의 토기를 형식분류하여 이 토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도 적절한 분류를 시도하여 그 개념을 확고히 하였다. 즉 형태조합³⁾을 통해 전체적인 기형파악의 추정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기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양식적·기술적 속성⁴⁾을 파악하였다. 또한 한반도 전체를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분포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즉, 북한지역, 강원영동지역, 경기중부지역, 충청서해안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북한지역은 다시 두만강유역의 동북지방, 압록강 하류

3) 세부기종별 신부형태, 세부기종별 저부형태, 저부형태별 신부형태 그리고 저부형태별 저부 바닥형태의 4가지 분석을 통해 상호 조합상을 알아보았다.

4) 양식적·기술적 속성은 굽다리토기가 갖는 제작기술상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속성요소로 일반적인 평저발형의 조질무문토기와 차별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함과 동시에, 대부형과 대각형의 器形 차이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유형으로의 파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의 서북지방 그리고 원산만 일대로 세분하여 알아보았다. 이 지역권은 굽다리토기의 형식 차이도 반영하지만 유적 편년관, 공반유물 그리고 출토유구상에 있어서도 그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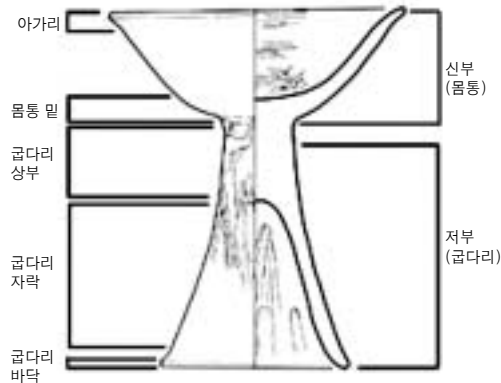
끝으로 형식별로 나타나는 지역적 분포 및 특징을 바탕으로 굽다리토기의 시·공간적 전개 양상과 형식조합 및 출토유구별 분석을 통한 성격⁵⁾을 추론하였다.

II. 형식분류

1. 속성설정

본 고의 연구대상인 굽다리토기는 제작기술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無文土器를 최상위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형식상 기능을 반영하는 굽다리토기의 기종을 그 하위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종은 다시 동일 기종 내의 기형 및 크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亞型式의 분류가 가능한데, 이 범주에 속하는 예로 저부의 높이에 따라 대부형(I형)과 대각형(II형)의 설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토기용량의 절대적인 반영기준이 되는 신부의 형태와 개별기종 내의 양식적·기능적 속성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형태적 속성의 2차 분류가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효과나 기호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저부형태나 저부바닥의 세부형태를 접목시킬 수 있다.

<도 1> 굽다리토기 세부명칭



5) 여기서 '性格'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토기가 갖는 機能을 밝힘으로써 제작·사용집단의 생활양식 및 관념·사상적인 기반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사용하였다. 즉, 단순한 용도의 설정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굽다리토기가 가지고 있던 성격 일부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도 2〉 형태적 속성 반영요소

類型	細部器種		形態屬性					
			身部形態	底部形態		底部 바닥形態		
무문토기	굽다리토기	대부형 (I)	호형 ①		원주형 A		평저형 a	
			발형 ②		(절두) 원주형 B		오목형 b	
	대각형 (II)	완형 ③		나팔형 C		투공형 c		
		접시형 ④		원주+나팔형 D				

이러한 분류체계의 단위설정이 가능한 것은 유물들 서로를 변별시켜주는 속성단위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찰자의 관찰 범주에 따라 형태·양식·기술속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總體로서, 개별 유물에 대한 형식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속성조합

세부기종별 신부형태와 저부형태 그리고 저부형태별 신부형태와 저부 바닥형태의 속성간 상호 조합상을 통해 형식분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형태속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토기형식에 적용된 양식적 속성이나 기술적 속성의 반영요소를 분석하여 동일 기술유형으로의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부형과 대각형으로 분류된 I형과 II형의 토기에서 서로 조합되는 신부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이 분석을 통해 형식분류 속성의 기초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각 기종의 기능성 차이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표 2> 세부기종별 신부형태 비교

세부 기종	신부	호	발	완	접시	결손	계
		①	②	③	④		
대부	I	36	15	11	1	28	91
비율(%)		40	16	12	1	31	100
대각	II	16	·	13	42	136	207
비율(%)		8	·	6	20	66	100
계		52	15	24	43	164	298

I 형은 壺形→鉢形→盥形→접시형의 순으로 身部形態의 비율이 나타난다. 즉, 총 91점 중 40%가 壺形의 신부형태를 보이고, 鉢形과 盥形の 형태조합이 각각 16%와 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접시형의 신부조합은 1점에 불과하다. II 형은 대부분 기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저부만 잔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체 207점 중 66%가 저부만 잔존하는 경우로, 完形으로 출토된 토기의 개체수나 도면 복원상으로 볼 때, 이들 토기는 대부분 접시형의 신부형태와 조합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즉 I 형은 주로 호형과의 조합을 보이고 있으며, II 형은 접시형의 신부와 결합되고 있어, 이들 두 형태는 형식분류의 1차적인 분류요소로 적용되었다.

세부기종별 저부형태의 분석은 I 형과 II 형의 분류기준이 된 저부의 상대적인 높이에 따른 2차원적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표 3>.

<표 3> 세부기종별 저부형태 비교

세부 기종	신부	원주	절두 원추	나팔	원주 + 나팔	결손	계
		A	B	C	D		
대부	I	31	36	23	0	1	91
비율(%)		34	40	25	0	1	100
대각	II	41	27	81	55	3	207
비율(%)		20	13	39	27	1	100
계		72	63	104	55	4	298

반영하면서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현상⁶⁾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저부형태별 신부형태의 조합상을 알아보았다<표4>. 저부형태별 신부 조합상에 있어 원주형의 저부에는 호형이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5점의 발형과 조합을 이루고 있다. 결손 처리된 23점 역시 대부분 호형과 발형으로 판단된다. 절두원추형의 저부에는 비교적 고 큰 조합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盥形과의 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

I 형은 圓柱形, 截頭圓錐形, 喇叭形의 형태가 모두 관찰되는 반면 圓柱+喇叭形은 1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높은 크기의 底部를 가지고 있는 II 형은 4가지 형태의 저부가 모두 관찰되고 있으나 나팔형과 원주+나팔의 형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각각의 저부형태가 시대성을

I 형은 圓柱形, 截頭圓錐形, 喇叭形의 형태가 모두 관찰되는 반면 圓柱+喇叭形은 1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높은 크기의 底部를 가지고 있는 II 형은 4가지 형태의 저부가 모두 관찰되고 있으나 나팔형과 원주+나팔의 형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각각의 저부형태가 시대성을

6) III장 '지역별 분포 및 특징'에서 자세히 다루어 놓았다.

<표 4> 저부형태별 신부형태 비교

신부		호	발	완	접시	결손	계
		①	②	③	④		
원 주	A	41	5	1	2	23	72
비율(%)		57	7	1	3	32	100
절두원추	B	6	5	15	7	30	63
비율(%)		10	8	24	11	47	100
나 팔	C	4	4	8	25	63	104
비율(%)		4	4	8	24	60	100
원주+나팔	D	.	.	.	9	46	55
비율(%)		.	.	.	16	84	100
결손		1	1	.	.	2	4
비율(%)		25	25	.	.	50	100
계		52	15	24	43	164	298

량을 차지하고 있는 나팔형의 저부에는 총 104점 중 60%가 결손 처리되어 있으나, 完形으로 출토된 기형을 감안할 때 신부는 대부분이 접시모양으로 판단된다. 원주+나팔형의 저부 역시, 출토 유물 모두 접시모양의 조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주형의 저부에 호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태, 절두원추형의 저부에 완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태, 그리고 나팔형이나 원주+나팔형의 저부에 접시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태는 각각 굽다리토기의 한 형식으로서의 설정이 가능한 속성요소들이다.

<표 5> 저부형태별 저부바닥형태 비교

신부		평저	오목	투공	결손	계
		a	b	c		
원 주	A	2	17	39	14	72
비율(%)		3	24	54	19	100
절두원추	B	5	20	37	1	63
비율(%)		8	32	59	1	.
나 팔	C	2	13	87	2	104
비율(%)		2	12	84	2	.
원주+나팔	D	.	26	29	.	55
비율(%)		.	47	53	.	100
결손		.	1	.	3	4
비율(%)		.	25	.	75	100
계		9	77	192	20	298

속성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저부형태별 저부바닥형태의 조합을 들 수 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속성의 저부에서 투공과 오목의 형태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굽다리토기 중 II형의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즉 원주, 절두원추, 나팔형태의 저부에서 관찰되는 평저의 바닥은 모두 I형에 속하는 속성들이다.

끝으로 형식분류된 세부기종별 양식적인 속성과 기술적인 속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I형과 II형이 제작 기술유형상 동일한 유형으로서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형식분류의 한 속성으로 살펴보았다(표 6).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굽다리토기의 세부기종별로 나타나는 색조 및 표면처리기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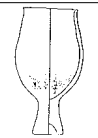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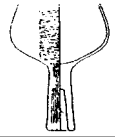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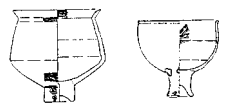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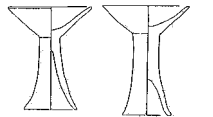
I형과 II형에서 유사한 비율상으로 나타났다. 즉 I형과 II형은 동일 기술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갈색 및 적색의 마연토기로 볼 수 있다.

<표 6> 세부기종별 속성분석

세부 기종	속성	색 조					계	표 면 처 리					계
		갈색	적색	흑색	회백색	불명		마연	물손질	슬립	깎기	불명	
대부	I	50	21	4	1	15	91	44	12	3	6	26	91
비율(%)		55	23	4	1	17	100	48	13	3	7	29	100
대각	II	119	28	11	10	39	207	65	33	15	8	86	207
비율(%)		57	14	5	5	19	100	31	16	7	4	42	100
계		169	49	15	11	54	298	109	45	18	14	112	298

3. 형식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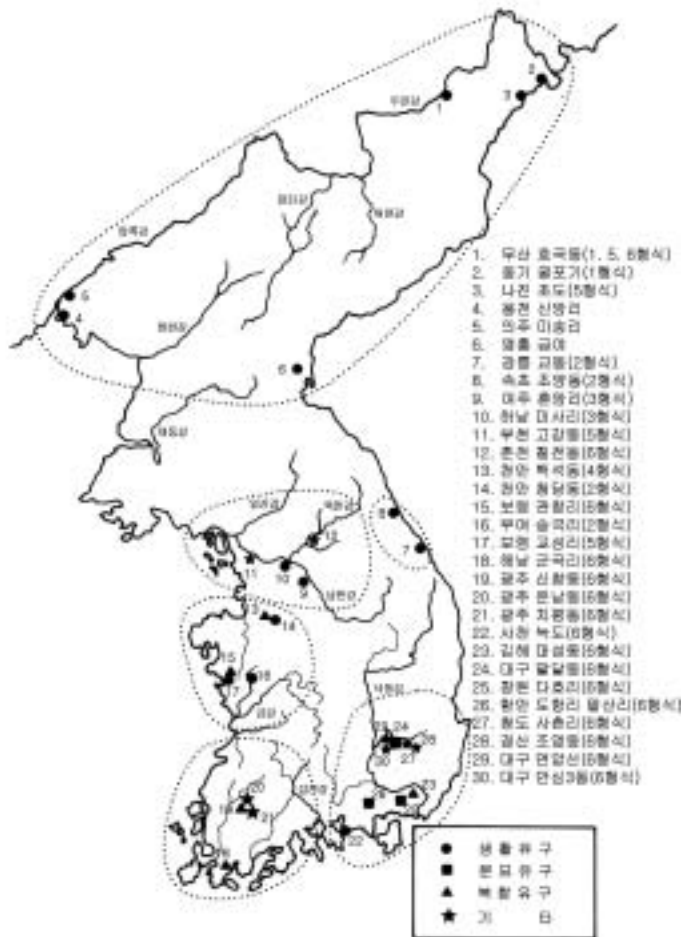
<도 3> 형식분류

형식	기형	형태조합		속 성
1형식		I	②Cb	대부형으로 짧은 오목굽에 발형이나 심발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태
2형식		I	①Cb ①Bb	대부형으로 신부는 호형으로의 변화가 관찰되며, 저부가 高臺化되는 형태
3형식		II	①Ac	대각형으로 신부는 호형이며, 저부는 투공된 원주형이 결합된 형태
4형식		I	②Ab ③Ac	대부형으로 신부는 발형→盥形으로, 저부는 오목굽→투공된 저부로의 변화가 관찰되는 형태
5형식		II	③Bc ④Bc	대각형으로 신부는 盥形→접시형으로의 변화가 관찰되며, 투공된 절두원추형의 저부가 결합된 형태
6형식		II	④Cc ④Dc	대각형으로 신부는 접시형이며, 나팔형과 원주+나팔형의 저부가 결합된 형태

본 고에서는 저부의 高低에 따라 세부기종 분류를 하였다. 즉, 대부형(I형)은 저부:신부의 비율이 1:5~1:1 미만의 토기로 신부의 형태에 따라 I①, I②, I③, I④조합으로 구분 가능하며, 2차 분류요소로는 저부형태 및 저부 바닥형태에 따라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대각형(II형)은 저부:신부의 비율이 1:1 이상인 토기이며, 신부형태, 저부형태, 저부 바닥형태는 대부형과 동일한 기준하에서 설정하였다.

Ⅲ. 지역별 분포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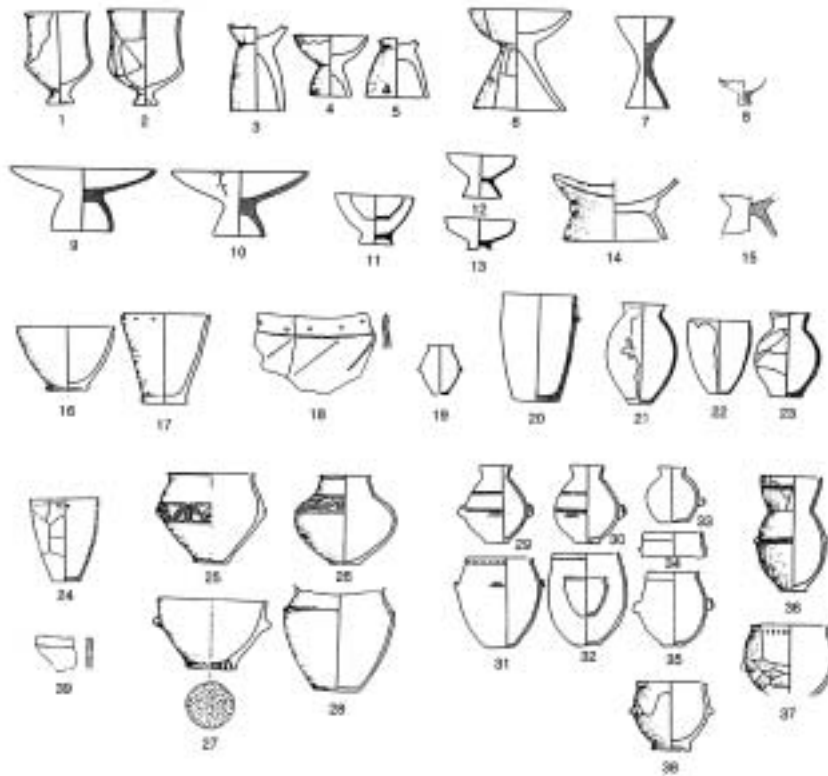
<도 4> 한반도 굽다리토기 출토 유적 분포도



1. 북한지역

북한지역은 다시 3개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두만강유역의 茂山 虎谷洞, 雄基 堀浦里, 羅津 草島遺蹟과 압록강 하류의 龍川 新岩里, 義州 美松里遺蹟, 마지막으로 원산만 일대의 永興 金野遺蹟으로 분리 설정이 가능하다.

<도 5> 북한지역 출토 굽다리토기 및 공반유물(축척 1/10)



1~15 : 굽다리토기(1·2:호곡동 1기층, 3-5:호곡동 4기층, 6:호곡동 5기층, 7:호곡동 6기층, 8:굴포리, 9·10:초도, 11-13:신암리, 14:미송리, 15:금야)

16~39 : 공반유물(16-18:호곡동 1기층, 19:호곡동 4기층, 20:호곡동 5기층, 21-23:호곡동 6기층, 24:굴포리, 25-28:초도, 29-35:신암리, 36-38:미송리, 39:금야)

북한지역에서는 모두 주거지의 생활유구에서 출토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 동북지방 중 호곡동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가능하며, 그 연대기적 폭도 1기층의 B.C. 3000년부터 6기층의 B.C. 200년대까지 매우 긴 편이다⁷⁾. 1기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1형식이지만 동체부 중간부분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신부형태는 신암리나 雙坨子遺蹟 출토유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4기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5형식이며, 5기층 유물은 6형식으로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토되는 유물양상을 보이고 있다. 6기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신부와 저부가 동일한 형태의 절구형태로 찾아보기 힘든 형태이다. 굴포리유적 출토 토기는 적색마연토기이며, 호곡동 1기층 출토유물과 유사하다. 초도유적 출토유물 역시, 호곡동 4기층 출토유물 저부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신부가 완전한 접시형태이다. 북한 서북지방의 신암리유적 출토 굽다리토기는 遼寧省의 雙坨子遺蹟 출토 토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적인 상관성⁸⁾이 엿보이는 유물이다.

공반유물은 두만강유역 동북지방의 경우 발형, 호형의 기종이 대부분으로 이중구연 계통의 공렬+단사선문토기가 있으며, 문양상 雷文, 魚骨文, 波狀文이 평저의 호형토기 동체부에 시문되어 있다. 압록강유역 서북지방의 미송리와 신암리유적에서는 미송리형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유물조합상 다소 차이점이 관찰된다. 원산만의 금야유적에서는 공렬토기와 乳頭形把手附土器, 흑도, 미송리형토기 등 양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각 유적의 상대편년은 호곡동 1기→굴포리·신암리 3지점→초도→호곡동 4기→호곡동 5기→호곡동 6기층 순으로 신부형태는 발형→盃形→접시형, 저부는 굽→절두원추형→나팔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추이는 굽다리토기의 변화형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2. 강원영동지역

강원영동지역에서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江陵 交洞과 束草 朝陽洞遺蹟으로 모두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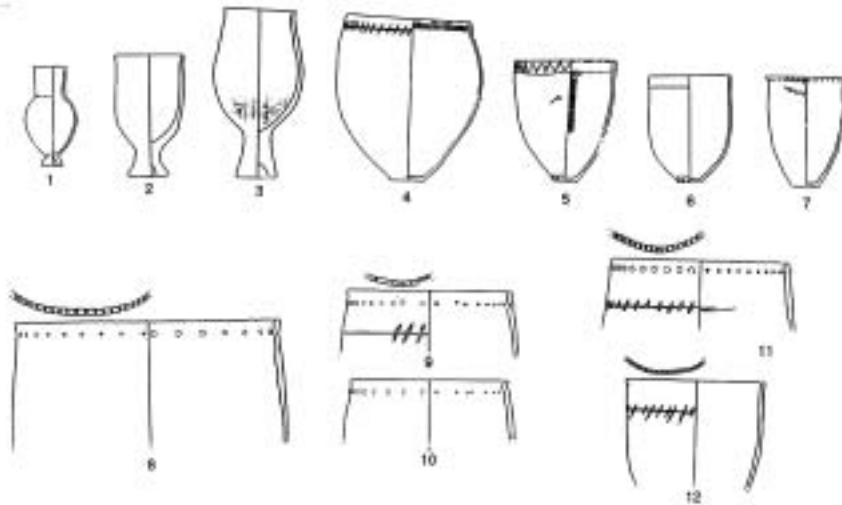
7) 호곡동유적 각 층위별 연대는 1기층:B.C. 3000년기 말~2000년기 초, 2기층:B.C. 2000년기 말, 3기층:B.C. 2000년기 말~1000년기 초, 4기층:B.C. 8~7세기, 5기층:B.C. 7~5세기, 6기층:B.C. 3세기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층위는 1·4·5·6기층이다(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1).

8) B.C. 2000년기 후반에 속하는 압록강 하류의 용천 신암리유적 3지점 2문화층과 遼寧省 旅大市 甘井子區 後牧城驛 雙坨子遺蹟 3기층에서 출토된 굽다리토기는 모두 주거지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며, 비교적 짧은 대각을 유지하면서, 신부는 鉢形이나 盃形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저부로부터 약 45°로 올라가다가 동체 중앙부에서 단을 이루며 거의 수직각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꺾이는 위치에 있어 쌍타자 출토 유물은 신부 중하부에서, 신암리유적 토기는 중상부에서 확인되어 다소간의 차이점이 엿보인다. 공반출토된 토기의 기형 역시, 平底長頸壺와 平底短頸壺가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문양면에서도 사격자문과 어골계통의 문양이 동체부에 시문되어 있는 점 등 두 유적간의 일정한 상관성이 엿보인다.

만한 구릉상에 입지한 주거지 유적이며, 인접한 지역에 경포호수와 청초호수가 있다.

조양동유적의 경우 1·3·4·7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모두 동-서 방향이며, 3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면적이 50㎡가 넘는 대형주거지인데 반해 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여타 30㎡이하의 소형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고 있는 同 유적 주거지⁹⁾와의 차별성이 엿보인다. 교동 및 조양동 출토 토기는 2형식으로 오목굽을 가진 대부형(I형)이며, 호형의 신부와 조합되고 있다.

<도 6> 강원영동지역 출토 굽다리토기 및 공반유물(축척 1/10)



1~3 : 굽다리토기(1:교동, 2·3:조양동), 4~12 : 공반유물(4-7:교동, 8-12:조양동)

공반되는 토기조합상은 교동유적의 경우 이중구연토기와 공렬토기가 각각 독립하여 존재한다. 조양동유적 출토 토기는 기형상 심발형, 옹형, 발형토기로 구분되는데 그 중 심발형, 옹형 토기는 이중구연과 홀구연으로 대별되며, 이중구연에 공렬문, 단사선문, 구순각목문이 장식되는 복합형식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유물을 특징으로 하는 조양동유형과 대비되는 주변지역 유형으로서는 함경남도 金野-土城里類型을 들 수 있다. 금야-토성리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은 공렬토기와 이중구연공렬토기, 흑색마연토기가 조합된 점과 扇形銅釜, 방울, 원반형기 등 다양한 청동기 實物과 鎔范이 포함된 점이다. 조양동유형과 금야-토성리유형을 대비해보면 兩 類型이 모두 주거지군이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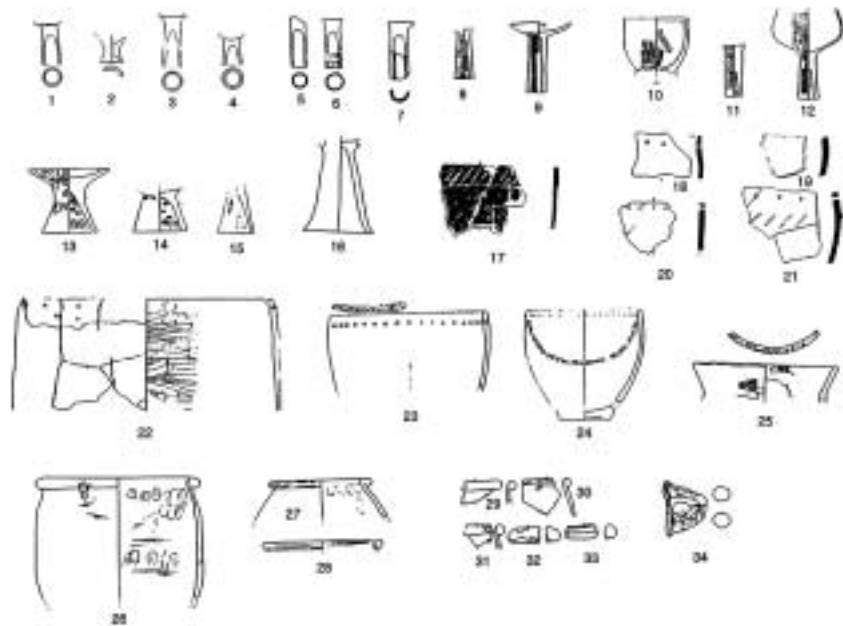
9) 굽다리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주거지는 2·5·6호 주거지이다. 이 중 5호와 6호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으로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다른 주거지가 동-서방향인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면적에 있어서도 30㎡ 이하로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보다 소형에 속하며, 5호 주거지에서는 노지가 확인되었다.

공렬토기와 이중구연공렬토기가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금야-토성리유형의 공렬토기와 이중구연공렬토기에는 把手가 붙어 있고, 그릇의 모양도 통이 깊고, 그릇의 벽이 직선적인 화분형인 반면, 조양동유형의 토기는 파수가 없으며 그릇의 벽도 완곡한 심발형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양 유형 상호간에 相似性和 相異性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시공적으로 근접하다는 점과 국지적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경기중부지역

경기중부지역에서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유적지로는 麗州 欣岩里, 河南 漢沙里, 富川 古康洞, 春川 漆田洞으로 대부분 마을유적이지만, 부천 고강동유적의 경우 출토된 유구가 의례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積石環溝遺構이며, 칠전동은 유물산포지이다.

<도 7> 경기중부지역 출토 굽다리토기 및 공반유물(축척 1/10)



1~16 : 굽다리토기(1-7:혼암리, 8-12:미사리, 13-15:고강동, 16:칠전동)

17-34 : 공반유물(17-21:혼암리, 22-25:미사리, 26-28:고강동, 29-34:칠전동)

이 지역 출토 굽다리토기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렬, 이중구연, 구순각목문이 단독으로 시문되었거나 각 문양속성이 한 개체에 복합 시문되어 주거지유구에

서 공반 출토되는 유형이다. 이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혼암리와 미사리유적이 있으며, 출토되는 토기는 대부분 3형식이다. 두 번째는 원형점토대토기 및 조합식우각형파수와 공반되며, 의례관련 유구 및 유물산포지에서 출토된다. 이와 관련된 유적은 고강동과 칠전동이며, 출토된 토기는 5형식이다.

3형식에 속하는 미사리와 혼암리 출토 굽다리토기는 모두 적색의 마연처리방법이 적용된 典型的인 홍도의 기술유형을 가지고 있는 토기로 출토유구상에서의 특별한 특징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암리 4호 주거지의 경우 일반적인 주거지가 아닌 특별한 건물지였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¹⁰⁾. 주거지 면적은 약 20~48㎡까지 다양한 규모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대부분 30㎡내외의 주거지에서 집중 출토되고 있으며, 원형 혹은 타원형의 무시설식노지를 1~2기 갖추고 있다. 5형식 토기는 고강동유적의 경우 절두원추형의 저부에 접시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식이고, 칠전동 유물산포지에서는 나팔형의 대각만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지역적으로 북한 및 강원영동지역의 주거지 유구에서만 확인되던 굽다리토기가 의례와 관련된 유구로 판단되는 고강동유적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4. 충청서해안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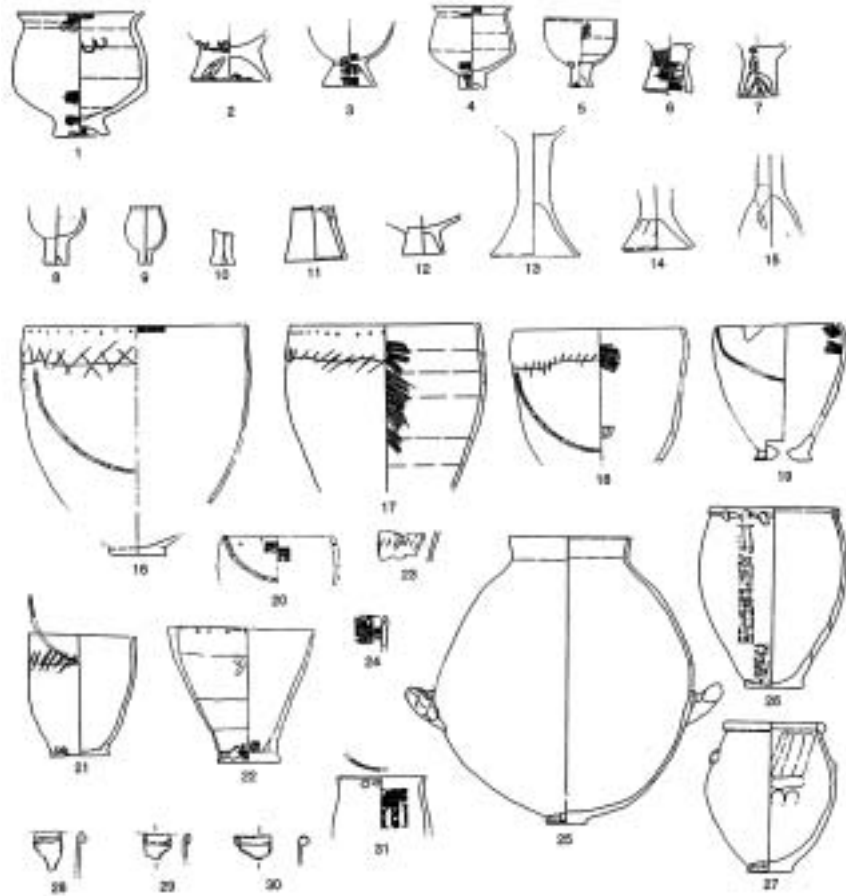
충청서해안지역에서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주거지 및 소성유구가 확인된 天安白石洞을 비롯하여 周溝墓가 확인된 保寧 寬倉里, 그리고 무문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된 天安 淸堂洞, 扶餘 松菊里, 保寧 校成里遺蹟을 들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 및 강원영동지역 그리고 경기중부지역의 한강유역에서 주거지 및 의례관련유구에서만 출토되던 것이 처음으로 분묘유적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주거지에서 공렬 및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 그리고 송국리형토기와 공반출토되는 굽다리토기와 주거지 및 분묘유적에서 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토기, 흑색마연토기와 출토되고 있는 굽다리토기의 형식변화가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가 백석동, 청당동, 송국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로서 4형식에 속한다. 다만 청당동과 송국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長卵形의 호와 결합된 형태로 강원영동지역의 속초 조양동유적에서 출토된 2형식 토기와의 유사성이 관찰된다. 후자의 경우는 주거지유적인 교성리와 주구묘가 확인된 관창리 유적 출토 토기들이다. 교성리 출토 토기는 5형식인 반면, 관창리 출토 토기는 6형식으로 남한지역 분묘유적에서 최초로 보이고 있다.

10) 혼암리 4호 주거지는 노지, 주공이 보이지 않고 바닥에 灰를 깔고 중앙에 타원형의 특별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종교적 또는 기타 특수한 건물지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金元龍 외 1973).

<도 8> 충청서해안지역 출토 굽다리토기 및 공반유물(축척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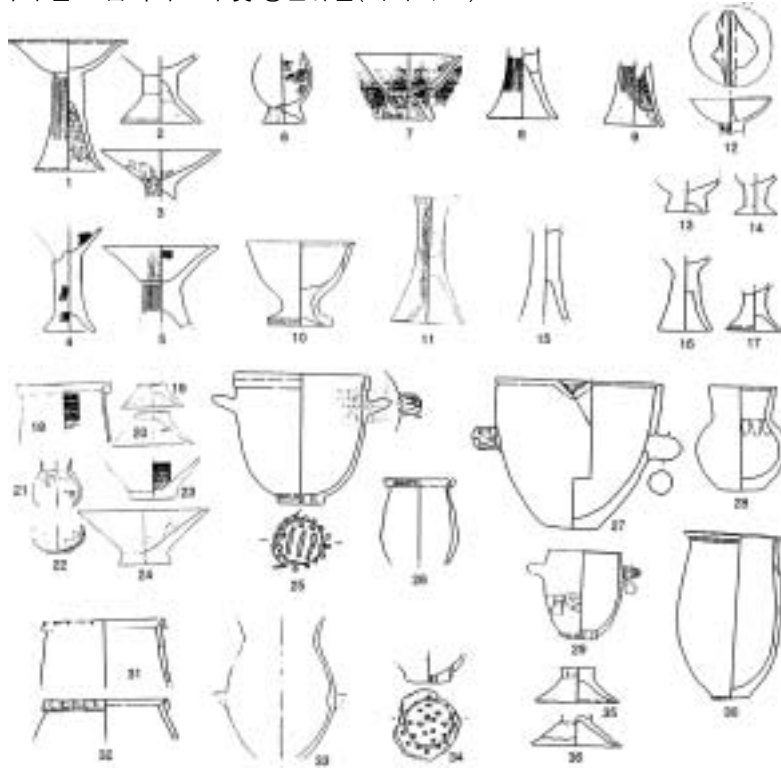
1~15 : 굽다리토기(1-7:백석동, 8·9:청당동, 10:송국리, 11·12:교성리, 13-15:관창리)

16~31 : 공반유물(16-22:백석동, 23·24:청당동, 25-27:교성리, 28-31:관창리)

충청서해안지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굽다리토기의 형식상 경기중부지역과는 또 다른 지역색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렬 및 이중구연 단사선문계의 무문토기시대 전기유적 출토 굽다리토기와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무문토기시대 후기 및 초기철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굽다리토기의 형식은 뚜렷한 양분현상을 보이고 있다.

5. 호남지역

<도 9> 호남지역 출토 굽다리토기 및 공반유물(축척 1/10)



1~17 : 굽다리토기(1-9:신창동 (1-6:저습지, 7·8:요지, 9:구상유구), 10·11:군곡리, 12-17:치평동)
18~36 : 공반유물(18-26:신창동, 27-30:군곡리, 31-36:치평동)

호남지역에서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주거지 및 패총이 확인된 海南 郡谷里를 중심으로 沼澤地 및 溝狀遺構의 生活遺構와 窯址가 확인된 光州 新昌洞, 그리고 유물산포지와 유물포함층의 光州 雲南洞, 治平洞遺蹟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출토유구상 주거지를 비롯하여 저습지, 요지, 패총 등에서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으나 분묘유구에서는 아직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토된 굽다리토기는 세부기종별 대부형(I형)과 대각형(II형)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II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I형은 절두원추형의 투공된 저부에 호형, 발형, 완형의 身部가 결합된 형태이다. 반면 II형은 6형식으로 대각의 高臺化현상이 관찰된다. 신창동유적의 경우 소택지, 요지, 구상유구의 비교적 다양한 유구에서 출토되었지만 유구별 출토된 굽다리토기의 형식상 큰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주거지 및 패총이 확인된 군곡리유적이나 특별한 유구 없이 유물포함층에서 노출된

치평동유적 역시 거의 모든 형태의 굽다리토기가 혼재하여 출토되고 있으나 6형식의 토기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공반된 출토유물로는 단면 원형 및 삼각형점토대토기를 비롯하여 조합식우각형과수부토기, 토기뚜껑, 시루, 장경호, 흑색마연토기 등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 초반을 대표하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6. 영남지역

영남지역에서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주거지가 확인된 三千浦 勒島와 燒成遺構 및 溝狀遺構가 확인된 金海 大成洞을 중심으로 토광묘 및 목관묘가 확인된 大邱 八達洞, 昌原 茶戶里, 咸安 道項里·末山里遺蹟, 그리고 유물포함층 및 유물산포지의 淸道 沙村里, 慶山 造永洞, 大邱 燕巖山, 安心3洞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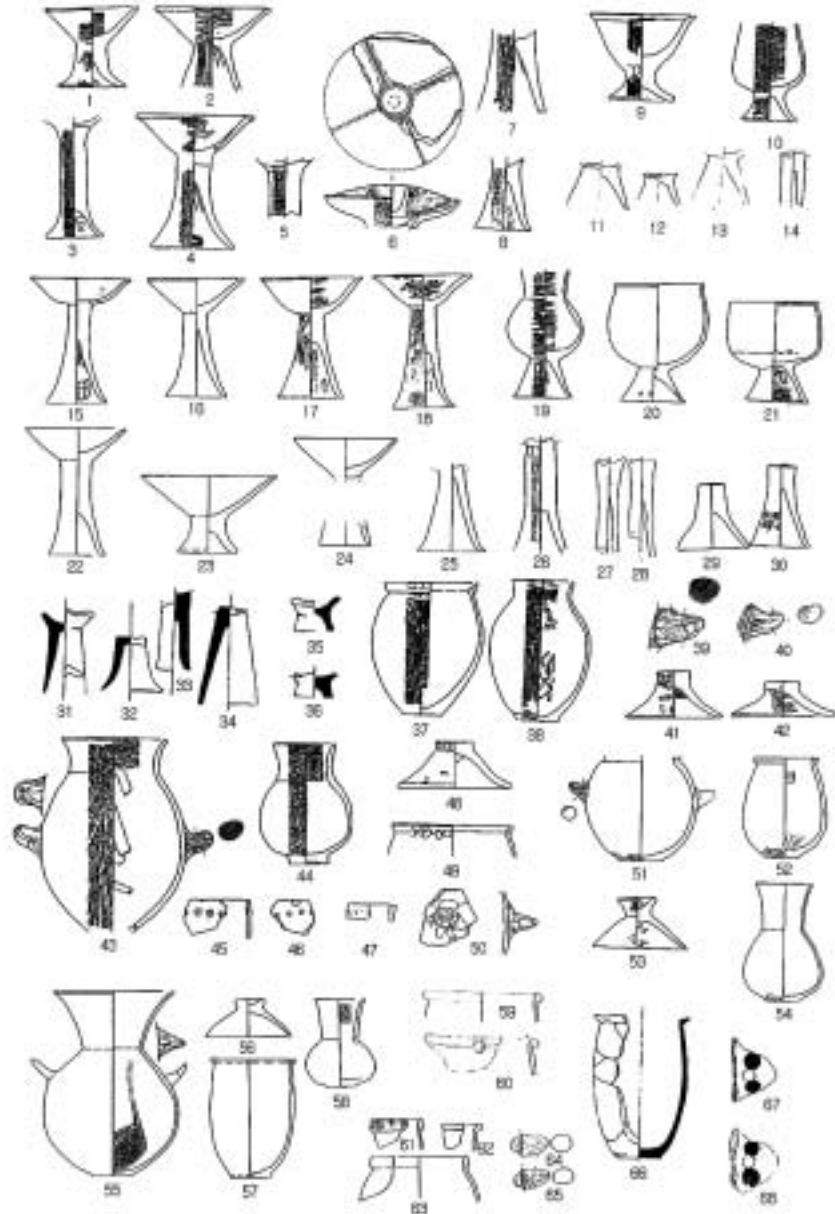
이들 토기가 출토된 유구들은 주거지 및 구상유구의 생활유구 뿐만 아니라 생산유구인 소성유구, 매장유구인 토광묘·목관묘 그리고 특별한 유구 없이 일정한 유물포함층이 확인되는 유구 등 다양한 유구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광묘와 목관묘가 함께 확인된 대구 팔달동유적의 경우 유구 내에서 26점의 굽다리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접시형의 신부에 칸막이를 하여 4칸으로 나눈 형태의 토기도 출토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광주 치평동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출토된 굽다리토기 형태는 주거지에서 확인된 늑도유적의 경우 총 21점 중 대부분(I형)과 대각형(II형)이 각각 10점과 11점으로 확인되어 약 50%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I형의 경우 호형이나 발형의 身部와 결합된 나팔형의 저부가 대부분이다. II형은 6형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해 대성동유적 출토 토기는 신부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저부의 형태는 4가지 형태가 모두 출토되고 있다. 팔달동유적 출토품은 I형의 경우 절두원추형의 저부에 호형과 발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태이며, II형은 대부분 6형식이다. 창원 다호리유적 출토 I형은 절두원추형의 저부에 호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태와 나팔형의 저부에 접시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태가 확인되며, II형은 6형식이다. 함안 도항리·말산리유적에서는 1점의 6형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끝으로 大邱盆地 내의 琴湖江流域에서 확인된 안심3동, 조영동, 사촌리, 연암산유적에서 출토된 굽다리토기는 거의 모든 형태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나 主를 이루는 형식은 역시 6형식이다.

위와 같이 영남지역 출토 굽다리토기는 세부기종 중 I형과 II형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나 타지역에 비해 나팔형의 저부에 접시형의 신부가 결합된 6형식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토유구에 있어서도 주거지 등의 생활유구에 집중되던 것이 분묘유구에서 그 출토량이 증가하고 있다. 공반유물은 원형 및 삼각형점토대토기, 흑도마연장경호,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토기뚜껑, 시루 등으로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 초반에 집중 출토되는 유물 조합

상을 보이고 있다.

<도 10> 영남지역 출토 굽다리토기 및 공반유물(축척 1/10)



1~36 : 굽다리토기(1-10:늑도, 11-14:대성동, 15-21:팔달동, 22·23:다호리, 24:도항리·말산리,
25·26:안심3동, 27·28:사촌리, 29·30:조영동, 31-36:연암산)
37~68 : 공반유물(37-44:늑도, 45-50:대성동, 51-54:팔달동, 55-58:다호리, 59·60:사촌리, 61-65:조영동,
66-68:연암산)

IV. 시공적 전개양상

1. 시간적 추이

1형식은 북한지역 중 동북지방에 해당하는 두만강유역의 무산 호곡동 1기층에서 출토되었다. 호곡동 1기층은 B.C. 3000년기 말~2000년기 초의 신석기시대 말기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1기층에 해당하는 주거지로는 1·2·3·9·12(ㄱ)·12(ㄴ)·23·24·25·41호의 총 10기로 이 중 1호 주거지에서 1형식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공반유물은 점열문, 뇌문의 무늬그릇과 공렬계의 발형 및 호형토기를 비롯하여, 흑요석격자 1,000여 점, 석핵, 타제·마제의 화살촉, 곰배괘이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토기 및 석기 출토유물 양상은 기존의 편년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물들이다. 따라서 호곡동 출토 1형식의 토기는 한반도 출토 굽다리토기의 가장 이른 시기인 B.C. 3000년으로 편년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형식은 강원영동지역의 강릉 교동, 속초 조양동 주거지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교동유적의 경우 1호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절대연대측정치는 B.C. 17~13세기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고고학 편년상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반되는 토기조합상은 이중구연의 단사선문과 공렬문이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어 서로 복합시문되어 나타나는 조양동이나 혼암리유적의 연대보다는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절대연대자료의 중심연대인 15세기를 교동의 중심연대로 보고자 한다. 조양동유적에서는 1·3·4·7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지만 5호에서만 목탄이 채취되어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2820 ± 60 B.P.(보정연대 1130~840 B.C.)로 나왔다. 또한 조양동 주거지와 同 類型인 방내리 A군 1·2호 주거지 밑에 중첩되어 나타난 방내리 3호 주거지의 탄소연대측정이 2930 ± 50 B.P.(보정연대 1270~970 B.C.)로 나온 점을 고려하여 조양동 주거지의 연대를 B.C. 10세기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백흥기 외 2000). 공반유물 역시 이중구연에 공렬문, 단사선문, 구순각목문이 장식되는 복합식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2형식 토기는 B.C. 15~10세기로 상정할 수 있다.

3형식은 경기중부지역의 한강유역에 위치한 여주 혼암리와 하남 미사리유적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혼암리유적에서는 1·2·4·5·9·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8호와 12호 주거지에서 탄소연대측정이 이루어졌다. 8호 주거지의 경우 2696 ± 160 B.P.(721 B.C.), 2666 ± 160 (691 B.C.), 2541 ± 150 B.P.(566 B.C.)로 나왔으며, 12호 주거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3210 ± 70 B.P.(1260 B.C.), 2620 ± 100 B.P.(670 B.C.)로 나왔고, 日本 理化學研究所 측정 결과 2920 ± 70 B.P., 2980 ± 70 B.P.로 나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B.C. 11~6세기에 집중되고 있다(任孝宰 1978). 따라서 그 중심연대는 B.C. 8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 것이며,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12호 주거

지의 절대연대를 감안한다면 B.C. 10세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미사리 유적에서는 송-2·3·5·10호 주거지와 서-3·9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탄소연대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고자(서울大學校博物館 1994;崇實大學校博物館 1994)에 따르면, 미사리 무문토기시대 주거지 편년을 혼암리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중심연대를 B.C. 6~4세기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3형식 토기는 공반되는 유물¹¹⁾과 함께 혼암리와 미사리유적의 중심연대를 빌어 B.C. 8~5세기로 편년하고자 한다.

4형식 토기는 충청서해안지역의 천안 백석동 주거지 및 요지에서 출토되었다. 백석동유적에서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주거지의 탄소연대측정 결과에 따르면 그 중심연대가 B.C. 9세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토기문양구성에 있어 혼암리유적과 유사성을 보이며, 굽다리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주거지의 절대연대측정 결과 B.C. 900~600년 사이로 편년되어 그 하한은 B.C. 7세기로 볼 수 있다. 결국 4형식의 토기는 B.C. 9~7세기로 그 절대연대를 상정할 수 있다.

5형식 토기는 북한 동북지역의 무산 호곡동 4기층, 나진 초도유적과 경기중부지역의 부천 고강동, 충청서해안지역의 보령 교성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우선 고강동유적 적석환구유구 II층에서 채취한 목탄을 탄소연대측정 한 결과 1750±80 B.P. (110~450 A.D.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대가 나왔다. 그러나 이 연대측정이 이루어진 지점이나 층위는 환구유구 남서쪽 II층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굽다리토기나 점토대토기는 환구유구 북동쪽 소토유구의 바닥층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시료채취 지점이나 층위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자(裴基同·姜秉學 2000)도 출토되는 공반유물을 고려해 볼 때 중심연대는 B.C. 3세기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성리유적에서는 2·5·9호 집자리에서 출토되었으며, 목긴 검은 간토기, 흙자귀 등의 공반유물 조합상을 고려하여 무문토기시대 후기 단계의 B.C. 3세기경으로 보고 있다(國立扶餘博物館 1987). 5형식은 공반하는 점토대토기의 연대와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요동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가 한반도에 유입된 계기를 燕 秦開의 고조선침공과 관련하여 B.C. 4세기말~3세기초(B.C. 300년 전후)로 보는 견해(朴淳發 1993;朴辰一 2000;李清圭 2000)가 지배적이다. 위와 같은 기존의 편년관과 관련 연구성과들을 볼 때, 5형식토기는 B.C. 3세기 전후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지역 출토 5형식토기는 이 보다 연대가 상향 설정되어 있다. 즉, 호곡동 4기층의 경우 B.C. 8~7세기, 나진 초도유적은 B.C. 2000년기의 신석기시대 말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초도유적의 연대는 이후 도유호(1994)에 의해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다시 주장되었다. 또한 쇠붙이도 출토되어 철기시대 초기까지 연속되는 유적이라는 견해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초도유적의 절대연대도 B.C. 7~5세기로 설정할 수 있겠다¹²⁾.

11) 혼암리와 미사리에서는 이중구연에 공렬 및 단사선문이 복합시문된 토기가 출토되었다.

12) 북한지역의 고고학편년은 다음(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1)과 같다.

끝으로 6형식토기가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적은 경기중부지역의 춘천 칠전동, 충청서해안지역의 보령 관창리, 호남지역의 해남 군곡리, 광주 신창동, 영남지역의 삼천포 늑도, 대구 팔달동유적 등 주거지 및 분묘유구에서 고루 출토되고 있다. 6형식토기의 편년은 경기중부지역과 충청서해안지역 그리고 호남 및 영남지역의 남부지방으로 구분되며, 그 연대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B.C. 3세기를 넘지는 않는다. 경기중부지역의 칠전동유적은 수석리의 탄소연대¹³⁾와 중도 칠기출토 주거지의 연대¹⁴⁾를 이용해서 상·하한을 B.C. 4중엽~2세기로 보았다. 따라서 5형식의 토기가 출토된 고강동유적의 연대가 B.C. 3세기보다 다소 이를 것으로 보고된 점을 고려할 때 칠전동 출토 6형식토기는 B.C. 3세기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서해안지역의 관창리 주거묘는 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와 공반 출토되고 있어 점토대토기의 중심연대인 B.C. 3~2세기로 제시해 놓았다(윤세영·이홍중 1997). 이 연대는 잠정적으로 제시해 놓은 편년이지만 출토되는 지역 및 굽다리토기의 형식으로 볼 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호남지역의 군곡리유적은 총 5기층으로 구분되며, 연대는 B.C. 4~3세기부터 시작하여 A.D. 3세기경에 해당되는데,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층위는 I·II·III기층에 해당된다¹⁵⁾. 이들 층위의 연대는 출토되는 유물조합상으로 볼 때 B.C. 3~A.D. 1세기에 해당되지만 6형식 토기는 I기층에서만 출토되어 B.C. 3세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창동유적 역시 삼각형 점토대토기 및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의 출토 유물상을 들어 유적의 연대를 B.C. 1~A.D. 1세기로 보고 있다¹⁶⁾. 영남지역의 늑도유적에서 출토된 6형식토기는 3호 수혈과 8호 주거지에서 출

시대명	원 시			고 대		중세	근대	현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철기			
편년	60만년 전~ B.C. 1만 5천년	B.C. 6000년기~ B.C. 2000년기 전반	B.C. 2000년기 전반 ~B.C. 7·6세기	B.C. 7·6세기 ~B.C. 3·2세기	B.C. 3·2세기			

- 13) 탄소연대측정 결과 2340±120 B.P.와 2230±280 B.P.로 측정되어 B.C. 4세기 초~3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金元龍 1966).
- 14) 중도주거지의 상한연대는 B.C. 2세기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식묘에서 출토된 철축과 점토대토기의 출토층위를 고려하여 지식묘의 연대를 추정하고 있다(國立中央博物館 1981).
- 15) 층위별 연대 및 출토유물은 다음과 같다(盛盛洛 1987·1988).
 제 I 기층 : 주로 점토대토기, 고배, 삼각형석축 출토, B.C. 3세기 초(下限)
 제 II 기층 : 단면 삼각형 점토대토기 및 화천 출토, B.C. 2세기(上限), A.D. 1세기(下限)
 제 III 기층 : 토제곡옥과 복골 출토, A.D. 1세기(上限)
 군곡리패총 하한연대 : 타날문토기 중 이중구연호, 거치문토기 대표적으로 출토, A.D. 3세기경
- 16) 고배 및 대부호는 저습지, 토기요지, 구상유구에서 출토되고 있다. 저습지는 유물의 출토상에 따라 크게 3개층으로 구분되며, 굽다리토기는 I·II기층에서 출토되었다. I기층은 칠기고배를 비롯한 다양한 목제유물과 흑도고배, 콩, 점토대토기, 바리, 토기뚜껑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II기층은 출토유물은 콩을 비롯한 점토대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그 외 고배, 흑도마연토기, 바리, 깊은바리, 시루, 옹형토기 등이 있다. III기층은 유적의 최상부에 위치하며 무문토기류와 함께 옹기·자기·와편 등 조선시대 후기의 유물도 포함되어 있다. 토기요지에서

토되었다. 이 유적은 삼각형 점토대토기를 標識遺物로 하며, 그 연대는 B.C. 2세기 중엽~1세기 전반으로 알려져 있다(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팔달동유적은 묘제의 유형에 따라 B.C. 3~A.D. 2세기로 편년¹⁷⁾하고 있으나 6형식토기는 IIa단계의 74호 목관묘에서 1점 출토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I 단계에서 출토되고 있어 B.C. 2~1세기로 편년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6형식토기는 B.C. 3~1세기로 그 중심연대를 설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형식은 B.C. 3000년(북한 동북지역), 2형식은 B.C. 15~10세기(강원영동지역), 3형식은 B.C. 8~5세기(경기중부지역), 4형식은 B.C. 9~7세기(충청서해안지역), 5형식은 B.C. 8~5세기(북한 동북지역)와 B.C. 3세기 이전(경기중부·충청서해안지역), 6형식은 B.C. 3~1세기(경기중부·충청서해안·호남·영남지역)로의 형식간 推移 설정이 가능하다.

2. 전개 및 발달과정

무문토기시대 전기 주거지유적에서 공렬 및 각형토기와 공반하는 1·2·3·4형식의 굽다리 토기는 점토대토기문화가 도래하면서 생활, 분묘, 생산, 폐기 그리고 의례관련유구에서 5·6형식 토기로의 변화를 보인다. 제작기술유형으로 볼 때 5·6형식의 굽다리토기는 점토대토기문화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물적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점토대토기와 함께 들어왔던 들어오지 않았던 기존의 굽다리토기는 사라지고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면서 양 형식간의 토기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확대 전개된다.

두만강유역의 경우 적색마연토기는 굴포리 무문토기시대 제1기층(아래층), 제2기층(윗층), 무산 호곡동 제2기층 등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적색은 아니지만 얇고 정선된 태토의

서는 고배와 옹, 발, 시루 등 B.C. 1세기대 점토대토기 단계의 全 器種이 발견되었다.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뿐이며 그 종류는 점토대토기, 컵형토기, 바리, 토기뚜껑, 옹형토기 등이 있다. 6형식토기는 위의 세 유구에서 모두 출토되었다(趙現鍾·張齊根 1993).

17) 묘제의 유형별 편년(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묘형 단계	통나무관 목관묘	통나무관 적석목관묘	판재식목관묘	판재식 적석목관묘	토광묘	목곽 묘	편년
I	a	71		40	41	76, 110	B.C.2 후반 ~ B.C.1 후반
	b	58	45, 55	57, 99, 63, 75, 49, 113, 114, 125, 126, 52	77, 79, 35, 44	42, 122, 73, 81, 39	
	c	64, 83, 100	90	94, 59, 78, 118, 120	80, 86, 88, 30	60, 87, 116, 124	
II	a			85, 28, 31, 74, 82, 43, 37, 29, 26, 38, 12	101, 47	85, 48, 32	기원전후~ A.D.1 후반
	b	107		96, 95, 111, 112, 50, 102, 105	106		
III						117	A.D. 2 중반

기벽면을 광택이 나도록 마연하는 기법은 이미 신석기시대 최후단계인 호곡동 제1기층에도 있으며, 이러한 마연기법으로 된 토기의 기종에는 비교적 좁고 낮은 굽이 달린 토기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호곡동 제1기층에서 출토된 굽다리토기의 후속 기형으로 판단되는 토기가 굴포리 청동기시대 제2기층에서 적색마연토기로 나타나고 있어 신석기시대 말기의 마연기법이 청동기시대의 적색마연토기 기술적유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논문도 있다(朴淳發 1999). 그러나 이러한 굽다리토기가 대동강유역에서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¹⁸⁾, 원산 만일대의 금야유적에서 동북지방의 공렬토기와 서북지방의 각형토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나타난다. 이후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강릉 교동, 속초 조양동 등 최근 확인된 일련의 유적으로 남하 확산되었던 것이다. 또한 굽다리토기들은 속초, 강릉 등지의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한강 및 금강유역으로의 확산일로 속에서 각각 지역색을 갖추면서 그 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호남 및 영남지역의 공렬 및 각형토기를 공반하는 유적에서는 굽다리토기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중부지역 이남으로 점토대토기와 공반하는 토기는 형식상의 변화(5·6형식으로)를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점토대토기문화를 일궈낸 집단의 이주(朴淳發 1993; 朴辰一 2000; 李健茂 1994), 혹은 그들 집단의 일부가 한 곳에 정착한 뒤 지역화된 요소가 문화접변, 혹은 교역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파(李在賢 2002)된 영향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렬 및 각형토기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가 남부지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강 혹은 금강유역으로 유입된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계속에서 부천 고강동, 춘천 칠전동, 보령 교성리 등의 유적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관창리유적은 주구묘에서 굽다리토기와 점토대토기, 그리고 흑색마연토기가 공반 출토되고 있다. 한편, 주거지와 주구묘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거지내에서 송국리형토기와 더불어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축조집단의 뚜렷한 차이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주구묘가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영되었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있는 것만 큼은 확실하다. 따라서 관창리유적은 송국리형토기집단과 점토대토기집단의 대립과 수용의 과정속에서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윤세영·이홍중 1997).

호남 및 영남지역에 굽다리토기가 도래하기 以前の 在地集團은 송국리형주거지와 송국리형토기가 중심이 되는 송국리문화와 함께 요녕식동검이 출토되는 지식묘문화가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그간의 연구성과에 의해 定說化되어 있다. 이 토착문화의 기반 위에 출현경로 및 동인은 아직 정설화되지는 않았지만 요서~요동지역의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燕의 세력확

18) 대동강유역에서 굽다리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딱히 단정해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고루 출토되고 있는 이 토기가 대동강유역에서만 출토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만강유역이나 압록강유역의 굽다리토기가 대동강유역을 우회하여 원산만일대로 전파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자료나 연구성과를 기대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적발굴의 한계성 및 국지적인 현상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 11> 굽다리토기 출토유적군별 전개과정(○:굽다리토기 형식)

지역군 연대	북한지역			강원 영동지역	경기 중부지역	충청 서해안 지역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출토유구 및 표지 적인 공반유물*	
	동북지방	서북지방	원산만 일대							
B.C. 3000년	호곡동1기 ①								모두 주거지의 생 활유적에서 출토	
B.C. 2000년	굴포리 윗층①	신암리3지점 2문화								
B.C. 1500년				교동②						호·발형의 공렬 토기 이중구연단사선토기 공렬+이중구연단 사선토기 송국리형토기
B.C. 1000년		마송리	금야	조양동②	백석동④					
B.C. 500년	호곡4기⑤ 초도⑤ 호곡5기⑥			훈암리③ 미사리③	청당동② 송국리②					
B.C. 200년	호곡동6기			고강동⑤ 칠전동⑥	고성리⑤ 관창리⑥	군곡리 I기	사촌리	생활·분묘·폐기·생 산·의례 관련 유구 등 모든 성격의 유 적에서 출토		
기원 전후						군곡리 II기 운남동	암삼3동 늑도, 팔달동, 도항· 말산리		단면 원형·삼각형 점토대토 흑도마연장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 부호 토기뚜껑	
A.D. 100년						호남 및 영남지역 은 ⑥형식 토기 주류 치평동 신창동	대성동 다호리			

* 연대와는 무관하며, 점토대토기문화 유입 이전과 이후의 점선처리와 관계된 설명임.

장에 따른 재지주민의 직·간접적인 요인에 의해 남부지방으로 유입되었고, 戰國系의 철기문화¹⁹⁾와 함께 삼각형점토대토기로의 변형을 보이면서 굽다리토기도 형식상의 定型化를 이루며 정착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무문토기시대 전기까지 올라가는 굽다리토기는 금강상류의 천안 이북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무문토기시대 중기까지도 주된 기종은 아니었다. 그러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단계부터는 점차 主 器種으로서 정착하게 된다. 삼천포 늑도유적이나 해남 군곡리패총, 광주 신창동유적 등에서는 일상용 토기의 한 종류로서, 그리고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분묘에 부장된 토기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전통은 원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어지는데 삼한 중 특히 辰·弁韓지역의 경우에 그러하다. 馬韓지역에서는 고배형토기의 출토 예가 드문데 반해, 진·변한지역의 목곽묘에서는 자주 瓦質의 高杯形土器가 발견되며 이들은 4세기대에 들어와 陶質高杯로의 계승관계로 발전한다.

V. 성격추론

앞 장에서 보았듯이 점토대토기문화가 도래하면서 굽다리토기의 형식도 변화·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형식상의 변화가 단순히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기가 가지고 있던 성격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성격추론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출토맥락에 있다. 무문토기시대 전·중기의 굽다리토기 출토 유구는 생활유구에 속하는 주거지에서 모두 출토되었으며,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이후 시기의 유구에서는 생활유구 뿐만 아니라 분묘, 의례관련유구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형식조합에 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전자에 해당하는 유구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1·2·3·4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후자에 속하는 유구에서는 5·6형식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기 이전의 굽다리토기는 출토 맥락상 부장용으로서의 기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형상 일상용 중 煮沸用으로서의 기능도 상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공렬 및 각형토기를 수반하는 굽다리토기는 출토유구가 생활유

19)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철기문화는 戰國系 鐵器文化인 '蓮花堡-細竹里'類型的 철기로 그 시기는 B.C. 3세기대가 중심이다.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서북한과 中國 遼寧地域이며, 공반유물로는 鑄造鐵斧, 鐵鑿, 鐵錐, 鐵鋤 및 半月形의 鐵刀와 함께 梯形石刀 등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이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철기문화가 시작되는데 영남지역의 경우 B.C. 1세기를 전후한 시점의 서북한지방(樂浪郡)과 辰韓의 교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藤田亮策 1946; 朴辰一 2000)가 있다.

구인 주거지인 점, 기형상 호형이나 발형의 신부에 굽이나 원주형의 저부가 조합되어 있는 점, 기술유형상 수분의 흡수를 줄이기 위한 마연기법이 가미된 점²⁰⁾ 등으로 볼 때 컵이나 식기 등의 일상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굽다리토기가 출토된 혼암리 4호주거지의 경우 노지와 주공이 보이지 않고 바닥에 灰를 깔고 중앙에 타원형의 특별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종교적 또는 기타 특수한 건물지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金元龍 外 1973). 또한 조양동유적은 1·3·4·7호 주거지에서 굽다리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주거지는 50㎡가 넘는 면적의 대형주거지인데 반해 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여타 30㎡ 이하의 소형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고 있는 同 유적 주거지와 차별성이 엇보인다(백흥기 외 2000). 따라서 위와 같은 출토상황을 감안한다면 2형식과 3형식은 가옥 내 혹은 종교의식장 등의 특별한 장소에서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결국 공렬 및 각형토기와 공반되는 굽다리토기는 일상 생활용(1·4형식)이나 종교의식장 등에서 사용된 용기(2·3형식)로의 상정이 가능하며, 공헌용의 매납용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지역군별 굽다리토기 출토유구 분류²¹⁾

유구명		북한지역			강원영동지역	경기중부지역	충청서해안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동북지방	서북지방	원산만일대					
생활유구	주거지	무산 호곡동 웅기 굴포리 나진 초도	용천 신암리 의주 미송리	영흥 금야	강릉 고동 속초 조양동	여주 혼암리 하남 미사리	천안 백석동 천안 청당동 보령 관창리 부여 송국리 보령 교성리	해남 군곡리	사천 늑도
	구상유구 (沼澤地)							광주 신창동 (광주 신창동)	김해 대성동
분묘유구	주구묘						보령 관창리		
	토광·목관묘 (목관묘)								대구 팔달동 (창원 다호리) (함안 도항·말산리)
생산유구	요지 (소성)						천안 백석동	광주 신창동	(김해 대성동)
폐기유구	폐총							해남 군곡리	
기타	의례관련유구					부천 고강동			
	유물산포지 유물포함층					춘천 칠전동		광주 운남동 광주 치평동	청도 사촌리 경산 조영동 대구 연암산 대구 안심3동

20) 실제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과 인디안들이 사용하는 물담는 용기에는 마연토기들이 많은 편이며, 물이나 액체가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물성 기름을 바르고 마연하면 顔料의 접착력이 강해지고 광택이 잘 나며, 물이 새

이후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 정착 후 확산되어 가는 과정상에서 굽다리토기가 갖는 성격에 변화가 모색됨을 알 수 있다. 우선 출토맥락상 생활유구인 주거지 뿐 만 아니라 고강동유적과 같은 의례관련유구와 관창리 주구묘, 팔달동의 토광묘와 목관묘에서 기형상의 변화²⁰⁾를 보이며 다량 출토되고 있다. 이는 무문토기시대 전·중반기의 생활용기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소원성취 등의 기원과 관련된 의례용기, 그리고 공헌용으로의 기능 분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의례관련유구가 확인된 고강동유적의 경우 5형식으로의 변화상이 엿보이며, 팔달동이나 다호리 등의 부장용 굽다리토기는 6형식으로 이전 형식과의 차별성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팔달동유적의 경우 청동기 및 철기를 반출하는 유구에서는 대부분 굽다리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타 유구에 비해 大形이고, 반경 5m의 주변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점(嶺南文化財研究院 2000)으로 미루어 보아 굽다리토기는 분묘별 피장자의 등급이나 신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무문토기시대 전기 주거지유적에서 공렬 및 각형토기와 공반하는 1·2·3·4형식의 굽다리토기는 점토대토기문화가 도래하면서 생활, 분묘, 생산, 폐기 그리고 의례관련유구에서 5·6형식 토기로의 변화를 보이면서 전개된다. 즉, 마연제작기술과 굽다리토기의 제작이라는 속성이 북한지역에서 제작되어 오다가 원산만일대의 금야유적에서 동북지방의 공렬토기와 서북지방의 각형토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고, 이는 강릉 교동, 속초 조양동 등의 유적으로 남하 확산된다. 이후 굽다리토기(1·2형식)는 한강 및 금강유역으로의 확산일로 속에서 각각 지역적인 특색(3·4형식)을 갖추면서 그 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강 혹은 금강일대에 점토대토기문화가 도래하면서 의례관련유구 및 분묘유구에서 형식상의 변화(5·6형식)를 보이면서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호남 및 영남지역에 이르러서는 공렬 및 각형토기를 공반하는 유적에서 이 토기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점토대토기문화를 일컫는 집단의 확산에 따른 요인으로 보았다. 즉 송국리문화와 함께 요녕식동검이 출토되는 지석묘문화의 토착문화 위에 요서~요동

지 않는다고 한다(溫故堂出版 1981; 韓炳三 1984).

21) 분류기준은 일상적으로 주거지등의 생활면과 관계된, 그리고 주거지와 영역을 달리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내에서 혼재되어 확인되는 유구는 生活遺構로 포함시켰으며, 특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墳墓나 貝塚 그리고 窯址 등은 따로 분류하였다. 다만 유구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유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물만 수습·출토되는 유물산포지, 유물포함층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22) 1·2·3·4형식에서 5·6형식으로의 변화가 관찰된다.

지역의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직·간접적인 요인에 의해 남부지방으로 확산되었고, 戰國系의 철기문화와 함께 삼각형점토대토기로의 변형을 보이면서 굽다리토기도 형식상의 定型化(6형식)를 이루며 전개된다. 이런 형식상의 변화가 단순히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기가 가지고 있던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지는 당시 사회상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로 판단된다.

1·2·3·4형식의 굽다리토기는 출토유구가 생활유구인 주거지인 점, 기형상 호형이나 발형의 신부에 굽이나 원주형의 저부가 조합되어 있는 점, 기술유형상 수분의 흡수를 줄이기 위한 마연기법이 가미된 점 등으로 볼 때 컵이나 식기 등의 일상 생활용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3형식 토기가 출토된 혼암리 및 조양동 주거지는 내부시설 및 규모면에서 同 유적 주거지와 차별성이 엿보이는 점을 들어 의례용으로서의 상징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한편 점토대토기와 공반되는 5·6형식은 출토맥락상 생활유구인 주거지 뿐 만 아니라 의례관련유구와 분묘에서 기형상의 변화를 보이며 다량 출토되고 있는 점을 들어, 무문토기시대 전반기의 생활용기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소원성취 등의 기원과 관련된 의례용기, 그리고 부장용으로서의 기능 분화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팔달동유적의 유구간 출토되는 유물조합상과 유구 배치, 그리고 규모를 비교하여 굽다리토기가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선사시대 굽다리토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토기연구의 한 공백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자료를 종합적으로 집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 형식분류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이들 토기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법의 시도가 필요하며, 좀 더 체계있는 분석을 통한 발생문제의 규명, 그리고 점토대토기문화와의 연계성 속에서 이들 토기가 형식상의 변화를 보이게 된 보다 적극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구간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이 토기가 갖는 특수성 내지 차별성 여부의 규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아직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신자료에 대한 소개를 하지 못하였다. 최근 경기 서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굽다리토기의 출토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姜仁求·李健茂·韓永熙·李康承, 1979, 「松菊里 I」-本文·圖版-, 國立中央博物館.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韓國考古學事典 上·下」, 文化財廳.
- 國立扶餘博物館, 1987, 「保寧 校成里 집자리」-發掘調査中間報告書, 國立扶餘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1冊.
- 國立中央博物館, 1981, 「中島」 進展報告 II.
- 金範哲, 1996, 「漢江流域 後期無文土器 研究-粘土帶土器文化의 展開樣相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碩士學位論文.
- 金相冕, 1990, 「清道 沙村里遺蹟 發掘調査報告」 『考古學誌』 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김용간·리순진, 1966, 「1965년도 신암리 유적 발굴 보고」 『고고민속』, 사회과학원출판사.
- 金元龍, 1966, 「水石里 先史時代 聚落住居址 調査報告」 『美術資料』 第11號, 國立中央博物館.
- _____, 1971, 「加平馬場里」-冶鐵住居址 『歷史學報』 50·51合輯.
- _____, 外, 1973, 「欣岩里 住居址 I」, 서울大學校博物館.
- _____, 外, 1976, 「欣岩里 住居址 III」, 서울大學校博物館.
- _____, 外, 1977, 「青銅器時代와 그 文化」 『三星文化 文庫』 89, 三星文化財團.
- 盧美善, 1998, 「錦江流域 粘土帶土器의 研究」, 全北大學校碩士學位論文.
- 노혁진, 1994, 「공렬토기 문화 특색의 전파망」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사논총(상)-고대편』, 일조각.
- 도유호 지음·한창균 엮음, 1994, 「조선원시고고학」, 백산자료원.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1, 「北韓文化遺蹟發掘概報」, 北韓文化財 調査書 第3冊.
-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 _____,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호서지방의 선사문화』, 제1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朴榮九, 2000, 「嶺東地方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檀國大學校碩士學位論文.
- 朴辰一, 2000,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湖西 및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裴基同·姜秉學, 2000, 「富川 古康洞 先史遺蹟 第4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富川市.
- 백흥기·고동순·백영구·최영희, 2000, 「東草 朝陽洞 住居址」, 江原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第13輯.
- 서울大學校博物館, 1994, 「羨沙里 4」, 羨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京畿道公營開發事業團.
- 盛盛洛, 1987·1988, 「海南郡谷貝塚 I·II」, 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
- 崇實大學校博物館, 1994, 「羨沙里 3」, 羨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京畿道公營開發事業團.

- 安在皓, 1989,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성격과 연대」 『늑도주거지』, 부산대학교박물관 .
——, 1992, 「松菊里類型的 檢討」 『嶺南考古學』第11號, 嶺南考古學會.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大邱 八達洞 遺蹟 I」.
윤세영 · 이홍중, 1997, 「寬倉里 周溝墓」,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 (株)大宇.
尹容鎮, 1969, 「琴湖江流域의 先史遺蹟研究」(I) 『古文化』 5 · 6合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李健茂, 1986, 「彩文土器考」 『嶺南考古學報』2, 嶺南考古學會.
——, 1994, 「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成立背景에 대하여-」 『東아시아의 青銅器文化-遺物을 通하여 본 社會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李南奭 · 李勳 · 李賢淑, 1998, 「白石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 忠清南道 天安市.
李相吉, 1991, 「한강유역철기시대 토기편년」-중도식토기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李在賢, 2002, 「圓形粘土帶土器文化에 대하여」 『金海大清遺蹟』, 부산대학교박물관.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1, 韓國上古史學會.
——, 1997, 「韓國青銅器時代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無文土器 研究의 現況과 課題-」 『박물관신문』312, 국립중앙박물관.
이홍중, 1991, 「중도식토기의 성립과정」 『한국상고사학보』6, 한국상고사학회.
——, 1993, 「송국리식 토기문화의 등장과 전개」 『선사와 고대』4.
林永珍 · 徐賢珠, 1997, 「光州治平洞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 · 光州廣域市都市開發公社.
任孝宰, 1978, 「欣岩里 住居址IV」, 서울大學校博物館.
정징원 · 신경철, 1987, 「종말기무문토기에 관한 연구」 『한국고고학보』20.
조유전, 1993, 「청동기시대의 공렬토기」 『문화재연구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제3집-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쌍타자」,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 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趙現鍾, 1989, 「송국리형토기에 대한 일고찰」 홍익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 張齊根, 1993, 「光州 新昌洞遺蹟」-第1次調査概報 『考古學誌』4, 韓國考古美術研究所.
하인수, 1988, 「영남지방 단도마연토기에 대한 신고찰」,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 1995, 「채문토기의 편년 검토」 『박물관연구논총 4』, 부산광역시립박물관
翰林大學校博物館 · 韓國土地公社, 1996, 「漆田洞 粘土帶土器 遺蹟 發掘報告書」, 翰林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9.
한상인, 1981, 「점토대토기문화성격의 일고찰」,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한영희, 1983, 「角形土器考」 『한국고고학보』14 · 15합집.
—— · 咸舜燮, 1993, 「天安 淸堂洞 第4次 發掘調査報告書」, 國立中央博物館.
黃基德, 1975, 「茂山 범의구석 遺蹟發掘報告」 『考古民俗論文集』第6輯.
藤田亮策, 1946, 「朝鮮發見の明刀錢と其遺跡」 『朝鮮考古學研究』.

A Study of Prehistoric high-footed pottery in Korea

Kang, Byung-Hak(Korea Institute of Heritages)

This research is about high-footed pottery among earthenwares of the prehistoric age that were excavated complexly and variously. The special deformity of this pottery has been recognized even though it has not been classified so far and the name has been used indiscreetly as well. That's why it needs a proper and objective thesis, now.

This pottery is made up the form classification of six forms through the detail kind of attributed analysis and is possible to set up the detail kind of I type and II type by the size of the bottom and body. The pottery of 1 · 2 · 3 · 4 form(north korea→gangwon-youngdong→mid-gyeonggi · west coast of chungcheong region) with rim-perforated and top-shaped potteries in the area of prehistoric habitation place,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change to the pottery of 5 · 6 form(mid-gyeonggi · west coast of chungcheong→Honam, Youngnam region) that was excavated from settlement, production, tombs, shell mound sites and the sunken place of remains related to ceremony, coming through Clay-stripes culture.

Exactly, at this point of coming of Clay-stripes culture, the form of high-footed pottery is also being changed and magnified. And the pottery of 5 · 6 form can be observed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ide effects and the ceremony container related to the origin and petition on the other hand, at a point of view of the excavation line, the collation of form and manufactured skills, 1 · 2 · 3 · 4 form is possible to be supposed as daily life containers.

{Key word}High-footed pottery, Rim-perforated pottery, Top-shaped pottery, Clay-stripes culture, Manufacturing technique, Expansion of time and areal, Functional differentiation